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겪는 대인관계문제의 보호요인으로서 회복탄력성의 역할*

신 수 연

김 근 향[†]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회복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트폭력(심리적, 신체적, 성적)과 대인관계문제(공격형, 고립형, 순응형)를 유형별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을 겪은 성인 남녀 121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심리적 폭력은 모든 유형의 대인관계문제, 신체적 폭력은 공격형 및 순응형 대인관계문제, 성적 폭력은 고립형, 순응형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모든 유형의 대인관계문제는 회복탄력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성적 폭력과 순응형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만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주요어 :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피해 유형, 대인관계문제, 회복탄력성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0)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2020년 가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게시발표 되었음.

† 교신저자: 김근향,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대로 201, Tel: 053-850-6365, E-mail: kh.kim@daegu.ac.kr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데이트폭력의 실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데이트폭력이 사랑 다툼이라는 인식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박경은, 유영권, 2017). 경찰청이 공개한 데이트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입건된 인원이 2017년에 11,114명, 2018년에 10,125명, 2019년에는 9961명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되었다. 데이트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성폭력, 가정폭력과 더불어 신고율은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만여 명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데이트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후유증을 보고하였다(이은혜, 이초롱, 현명호, 2009).

이처럼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였는데 연구자가 데이트폭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였는가에 따라 데이트폭력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폭력의 범위에 신체적 폭력만을 포함시킨 연구에서는 ‘교제하고 있는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공격 행동을 하는 것’(Puig, 1984) 또는 ‘데이트 중에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서경현, 2004)으로 정의하였다. 일부 연구(이영숙, 2005; Stets & Henderson, 1991)에서는 데이트폭력이 언어적 폭력으로 시작하여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데이트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데이트폭력의 개념을 보다 확장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하예지, 서미경, 2014). 이정은, 현명호와 유제민(2007)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에서 교제하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우현진, 장숙희와 권호인(2017)은 ‘결혼하지 않은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의 폭력피해 경험을 가정폭력으로 본다는 점과 최근 데이트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데이트폭력을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가 교제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행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외형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폭력의 영향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데이트폭력을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볼 때, 심리적 폭력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여 상대의 자아개념을 훼손하는 것으로 주로 언어적 폭력과 상대 물건을 부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비언어적 폭력으로 이루어져 있다(Sugarman & Hotaling, 1989). 신체적 폭력은 상대에게 고통 혹은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행동을 의미한다(Sugarman & Hotaling, 1989). 성적 폭력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여 신체적 및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한다(김경신, 김정란, 1998).

일부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처럼 사람에 의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외상사건을 복합외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안현의, 2007). 복합외상의 피해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성격 구조의 변화를 보이며 여기에는 자기인식 변화 혹은 타인과의 관계 변화 등이 포함된다(안현

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신연희와 채규만 (2010)도 복합외상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 배신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전이되어 대인관계를 이루거나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대인관계 상황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술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대인관계문제라고 본다(최임정, 심혜숙, 2010).

이 같은 대인관계문제는 Leary(1958)의 대인관계이론에 따라 8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고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 (1988)가 이를 적용하여 8가지 하위유형으로 구성된 대인관계문제 척도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등이 있다. 이에 대해 Horney(1945)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을 기준으로 대인관계문제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공격적인 경향을 보이는 유형으로 타인을 적대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특성이 있다. 여기에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 등이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고립적인 경향을 보이는 유형으로 혼자 있으려 하고, 삶의 문제를 회피하는 특성이 있다. 여기에는 ‘냉담, 사회적 억제’ 등이 속한다. 세 번째 유형은 순종적인 경향을 보이는 유형으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순종적이고 상대방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려는 특성이 있다. 여기에는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등이 속한다(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김은석, 이지연, 2018).

또한 Horney는 이 같은 대인관계문제를 겪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람은

안전을 위협받게 되면 불안을 느끼고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적대감을 가지게 되며 적대감이 다시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더 큰 불안을 야기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이때 불안을 겪는 개인은 주체적인 관계가 아닌 왜곡된 관계를 맺으면서 불안이 더욱 증폭된다(강승임, 2007). 이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역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아 불안을 느끼고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결국 대인관계에서 곤란을 경험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 선행연구(김은석, 이지연, 2018)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Horney의 기준을 적용하여 대인관계문제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대인관계문제는 심리적 부적응뿐만 아니라(권석만, 2004; 황혜자, 유선림, 2005)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김남재, 2000). 따라서 대인관계문제를 완충시키거나 적용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영역에서 이를 다룬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련성 및 피해자들이 겪는 대인관계문제를 완화하는 요인에 주목하고 이를 다루고자 한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대인관계문제에는 많은 요소가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적 요인과 개인의 성향은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더불어 데이트폭력을 겪은 피해자들은 애인에게 폭력을 당한 것이 부끄러워 숨기거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기에(손문숙, 조재연,

2016; 서경현, 2009) 대인관계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겪는 증상과 이후 대인관계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속성과 관련된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들이 처음 데이트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여 데이트폭력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Adler(1958)는 사람들 각자 경험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에 살아가는 태도와 방법이 다르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을 데이트폭력에 적용해 본다면, 데이트폭력을 경험하더라도 이를 대하는 태도나 이후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긍정적·적응적일 경우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려움을 적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과 유사하다.

회복탄력성이란 곤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을 말한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은 매우 역동적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환경 요인, 문화, 교육, 개인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으로(Dyer & McGuinness, 1996) 훈련 가능한 개인 속성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힘든 사건을 겪더라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Werner & Smith, 1989). 또한 그들은 불안과 우울에 취약하지 않고, 주변 체계에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충시

켜 환경을 바꿀 수 있다(Hernandez, 1994).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겠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도 회복탄력성을 상황적 요구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이보배, 2017). 허윤영(2012)은 한 부모가정에서 자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교우 관계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주연(2007) 또한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이를 감소시킨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에 상당히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대인관계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변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많은 선행연구(김혜진, 서경현, 2016; 장한, 김진숙, 2017)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경험이 증가 되었고 회복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즉, 외상 경험자 중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외상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중 일부가 외상사건을 토대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다는 우현진 등(2017)의 연구와 이화영(2014), 정윤주(2008)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더불어 회복탄력성에 관한 한 연구(Li, Yang, Liu, & Wang, 2016)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아야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로 볼 때,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을

당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2차, 3차 등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적응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에서는 여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남성 피해자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서경현, 이경순, 2002)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도 대부분 피해자를 여성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남성에 대한 여성의 폭력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Makepeace, 1986) 남성이 폭력을 보고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데이트폭력에서 남성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겪은 피해는 간과될 위험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겪은 다양한 유형의 폭

력 경험이 여러 가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회복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에는 남녀 피해자 모두를 포함 시켰고 폭력의 빈도가 피해 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을 겪은 기간을 통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일반성인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응답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연구대상자가 아닌(결혼하였거나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이 없음) 경우인 79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 121)

구분	N(%)	구분	N(%)
성별		경제 수준	
남	16(13.22)	상	1(.83)
여	105(86.78)	중상	19(15.70)
연령		중	65(53.72)
만 20~29세	74(61.16)	중하	30(24.79)
만 30~39세	47(38.84)	하	6(4.96)
데이트폭력 당한 기간		현재 관계	
1개월 미만	40(33.06)	이별	101(83.47)
1개월~3개월 미만	34(28.10)	연인	17(14.05)
3개월~6개월 미만	19(15.70)	친구	2(1.65)
6개월~1년 미만	13(10.74)	지인	1(.83)
1년~2년 미만	10(8.26)		
2년 이상	5(4.13)		

표 2. 요인들의 신뢰도 분석 및 평균과 표준편차 (N=121)

	신뢰도(α)	평균	표준편차
데이트폭력	.93	2.46	.76
심리적 폭력	.87	2.81	.79
신체적 폭력	.92	2.07	.98
성적 폭력	.87	2.19	1.03
대인관계문제	.93	2.62	.55
공격형	.84	2.42	.56
고립형	.92	2.68	.83
순응형	.89	2.77	.66
회복탄력성	.92	3.21	.45

명을 제외한 총 12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지에는 3개의 척도 외에 추가로 성별, 연령, 데이트폭력 경험유무, 데이트폭력 당한 기간, 경제 수준, 현재 관계 등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추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성이 105명(86.78%), 남성이 16명(13.22%)으로 대다수가 여성이었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 기간이 대부분 3개월 미만이었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2년 이상 데이트폭력을 당하였으며, 피해자의 14%가 데이트폭력에도 불구하고 연인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더불어, 각 요인의 신뢰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2에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포함한 모든 연구절차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1040621-202001-HR-045-02)을 받아 이루어졌다.

측정 도구

데이트폭력 경험척도

Straus와 Gelles(1990)의 갈등 대처 책략 (Conflict Tactics Scale)과 김정신, 김정란(1998)의 연구를 토대로 이송월(2005)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리적 폭력(예: '욕을 한 적이 있다. '), 신체적 폭력(예: '내 뺨을 때린 적이 있다. '), 성적 폭력(예: '성행동을 하기 위해 말로 위협한 적이 있다. ')의 경험 수준을 질문한다. 5점 Likert형 척도(1: 없음-5: 매우 자주)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이다. 이정은 등(2007)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2, 송민혁(2018)의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척도

Horowitz 등(1988)이 개발한 검사를 홍상황 등(2002)이 한국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 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SC)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

문항으로 Horney(1945)의 이론에 따라 3개의 하위요인인 공격형(15문항, 예: '내 주장만 내 세울 때가 많다.'), 고립형(15문항, 예: '다른 사람드로가 어울리는 자리는 자주 피한다.'), 순응형(15문항, 예: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당한 요구일지라도 하기 어렵다.')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5점 Likert형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상환 외(2002)의 연구에서는 .61~.89, 차혜련과 김중남(2016)의 연구에서는 .90의 신뢰도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의 신뢰도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척도

Reivich와 Shatte(2002)가 개발하고, 김주환(2011)이 수정 및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형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신우열 등(2009)의 연구에서 고등학생 집단이 .62 ~ .82, 대학생 집단이 .67 ~ .85의 신뢰도 계수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2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먼저 SAS 9.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데이터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피해 기간을 통제한 후 데이터폭력 피해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결 과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심리적 폭력 피해경험은 공격형($r=.19, p<.05$), 고립형($r=.22, p<.05$), 순응형($r=.21, p<.05$) 대인관계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은 공격형($r=.28, p<.01$), 순응형($r=.20, p<.05$) 대인관계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성적 폭력 피해경험은 고립형($r=.23, p<.05$), 순응형($r=.22, p<.05$) 대인관계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회복탄력성은 공격형($r=-.63, p<.001$), 고립형($r=-.76, p<.001$), 순응형($r=-.62, p<.001$) 대인관계문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졌다.

데이터폭력 피해경험과 대인관계문제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경우 개별 회귀계수의 효과를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하는 변수의 값에서 변수의 평균을 뺀 값(mean centering)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회복탄력성은 성적 폭력 피해경험과 순응형 대인관계문제에서 유의한 조절효과($\Delta R^2=.0217, p<.05$)를 보였다(표 3).

성적 폭력 피해경험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치(median)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고, 이에 따른 대인

표 3. 측정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N=121)

	데이트폭력			대인관계문제			회복 탄력성
	심리적	신체적	성적	공격형	고립형	순응형	
심리적	-						
신체적	.68***	-					
성적	.45***	.57***	-				
공격형	.19*	.28**	.17	-			
고립형	.22*	.17	.23*	.54***	-		
순응형	.21*	.20*	.22*	.41***	.62***	-	
회복탄력성	-.15	-.15	-.09	-.63***	-.76***	-.62***	-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성적 폭력과 회복탄력성에 따른 순응형 대인관계문제의 다중회귀분석결과

변량원	df	F	p	ΔR^2
피해 기간	1	.34	.5588	.0017
성적 폭력(A)	1	9.96	.0020	.0481
회복탄력성(B)	1	76.17	<.0001	.3681
A × B	1	4.48	.0363	.0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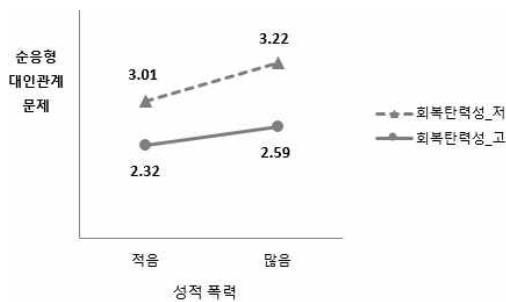


그림 1. 성적 폭력과 순응형 문제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관계문제의 평균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성적 폭력 피해경험이 많고,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유의미하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성적 폭력 피해경험이 적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대인관계문제를 유의미하게 덜 호소하였다.

한편 성적 폭력 피해경험과($F=13.05, p=.0004$) 회복탄력성($F=164.25, p<.0001$) 모두 고립형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0.13, p=.7211$).

심리적 폭력 피해경험($F=6.19, p=.0143$; $F=12.14, p=.0007$; $F=7.95, p=.0057$)과 회복탄력성($F=72.50, p<.0001$; $F=158.30, p<.0001$; $F=70.80, p<.0001$) 모두 공격형, 고립형, 순응형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53, p=.2192$; $F=1.34, p=.2492$; $F=1.23, p=.2690$).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F=15.60, p=.0001$;

$F=7.88, p=.0059$)과 회복탄력성($F=71.83, p<.0001; F=70.22, p<.0001$) 모두 공격형, 순응형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0.28, p=.5947; F=.04, p=.8510$).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피해경험이 공격형, 고립형, 순응형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 살펴본 데이트폭력에 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수집 당시의 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간 관계를 확인한 결과 데이트폭력 피해자 중 약 17%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그중 14%는 연인관계를 지속한다고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손문숙, 조재연, 2016)에서 폭력 직후 헤어짐을 택한 피해자가 3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 피해자가 관계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데이트폭력이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실태조사의 결과는 데이트폭력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일부 피해자들이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현재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성별 구분 없이 자료를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보다 월등히 많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현실에서 데이트폭력 상황이 더 적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오주령, 박지선, 2019) 실제 데이트폭력을 행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김유정, 서경현, 2009; 김정란, 김경신, 1999)고 보고되었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편포된 남녀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데이트 관계에서 자신이 겪는 마찰이나 갈등을 상대적으로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의심케 한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의 폭력피해 경험을 여성이 많이 했을 가능성이나 폭력의 피해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 등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향후 데이트폭력에 관한 남녀의 인식 및 폭력피해 경험의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트폭력 척도는 갈등 책략 척도를 데이트폭력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기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최근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데이트폭력 척도의 한계를 보완한 DVQ-R이 최근 한국어로 번안되었고 타당도가 검증되었다(서장원, 2021).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데이트폭력 척도의 한계를 보완한 DVQ-R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강효진, 2009; 이해원, 2016; 이은혜 외, 2009; 최윤경, 송원영, 2014)에서 연구대상을 여성으로 한정지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별의 구분 없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경험과 대인관계문제를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폭력 피해경험은 모든 유형의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폭력만을 경험하더라도 대인관계에

서 상대를 휘두르려 하거나 관계를 회피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상대에게 의존하는 등 어떠한 대인관계문제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모든 폭력의 유형은 순응형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유형의 데이트폭력도 순응적인 대인관계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Walker(1983)의 설명과도 부합 하는데 그는 연인에게 폭력을 경험하고,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할 경우 그 과정에서 무기력과 의존성을 함께 학습한다고 보았다. 즉,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 무기력과 의존성을 학습하여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에게 자신을 온전히 맞추는 대인관계문제를 동일하게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은 공격형 및 순응형 대인관계문제, 성적 폭력 피해경험은 고립형 및 순응형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의 유형에 따라 다른 유형의 대인관계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신체적, 성적, 심리적 데이트폭력의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 중 순응형 대인관계문제에서만 성적 폭력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 폭력을 당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에 대해 적응적인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데이트 성폭력을 겪음으로써 발생하는 소극적이고 복종적

인 대인관계 문제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으로 구성된 회복탄력성을 높여줌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심리적 폭력 피해경험,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 및 회복탄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더불어 성적 폭력 피해경험과 회복탄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성적 폭력 피해경험과 고립형 대인관계문제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경험하는 모든 유형의 대인관계문제를 회복탄력성의 변화만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반복검증을 통해 조심스럽게 해석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관계문제의 척도가 현대 사회의 젊은 성인들이 경험하는 실제적인 대인관계문제를 충분히 담지 못할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적절한 척도를 사용하여 데이트폭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훈련 가능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등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대인관계문제에 개입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또한 함께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승임 (2007). 청소년기 불안의 교육적 함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효진 (2009).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찰청 통계 (2017~2019).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 권석만 (2004).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경신, 김정란 (1998).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 행동과 관련 변인. 가정관리학회지, 8, 1-15.
- 김남재 (2000). 대인불안과 사회적 자기 불일치.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3), 473-483.
- 김유정, 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383-402.
- 김은석, 이지연 (2018).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성인 진입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19, 403-429.
- 김정란, 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8), 73-90.
- 김주연 (2007).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서울: 위즈덤하우스.
- 김혜진, 서경현 (2016). 중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삶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23(6), 297-316.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47-162.
- 서경현 (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699-727
- 서경현, 이경순 (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353-368.
- 서장원 (2021). 개정판 데이트 폭력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1), 109-123.
- 손문숙, 조재연 (2016).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 전화.
- 송민혁 (2018).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이 피해자의 결별의도에 미치는 영향: 데이트폭력 편견과 폭력 허용도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연희, 채규만 (2010). 강간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치유 프로그램의 방향. 피해자학연구, 18(1), 107-134.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안현의 (2007).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자기체계의 손상으로 본 복합외상증후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283-301.
-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우현진, 장숙희, 권호인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극복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315-335.
- 이보배 (2017).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경

- 최혜영 (2014).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송원영 (2014). 여대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명시적, 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433-446.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허윤영 (2012). 부모상실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 한부모가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23-940.
- 황혜자, 유선림 (2005).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및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30, 75-93.
- Adler, A. (1958).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A. Porter, Ed.). New York, NY: Putnam. (Original work published 1931).
- Dyer, J. G., & McGuinness, T. 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276-282.
- Hernandez, L. P. (1994).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orney, K. (1945). *Our inner conflicts: A constructive theory of neurosis*. New York: W. W. Norton & Co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
- Leary, T. (1958).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37(6), 331.

- Li, M. Y., Yang, Y. L., Liu, L., & Wang, L. (2016). Effects of social support, hope and resilience on quality of life among Chinese bladder cancer patients: a cross-sectional study.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4*(1), 73.
- Makepeace, J. M. (1986). Gender differences in courtship violence victimization.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 Puig, A. (1984). Predomestic strife: A growing college counseling concer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 Reivich, K., & Shatté, A. (2002). *The resilience factor: 7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Broadway Books.
- Stets, J. E., & Henderson, D. A. (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 29*-36.
- Straus, M. A., & Gelles, R. J. (1990). New scoring methods for violence and new norms for the Conflict Tactics Scale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341-367.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rs.*
- Walker, L. E. (1983). Victimology and the psychological perspective of battered women.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8*, 82-104.
- Werner, E. E., & Smith, R. S. (1989). *Vulnerable, but invincible.* Adams, Bannister, Cox.

1차원고접수 : 2021. 07. 12.

심사통과접수 : 2021. 08. 20.

최종원고접수 : 2021. 09. 30.

The Role of Resilience as A Protective Factor for Interpersonal Problems Experienced by Dating Violence Victims

Su-Yeon Sin

Keun-Hya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dating violence victim experi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to verify whether resilience has a moderating effect as a protective factor. For this purpose, dating violence(psychological, physical, sexual) and interpersonal problem(aggressive, detached, compliant) were subdivided by type. And by analyzing the data of 121 adult men and women who experienced dating viol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periences of dating viol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was examine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se relationship was verified. As a result, psychological viol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 types of interpersonal problems, physical violence was with aggressive and compliant interpersonal problems, and sexual violence was with detached and compliant interpersonal problems. All types of interpersonal problem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resilience. Also, it was fou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was significant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dating violence and compliant type interpersonal problem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he discussion.

Key words : *Victim of dating violence, Dating Violence Type, Interpersonal Problem, Resilience*